

광양 동천하류역 3~6세기대 쥐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연구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3rd~6th Century Settlements in
the downstream of Dong-cheon, Gwangyang

이 기 건

세종문화재연구원 연구원

I. 머리말

II. 동천하류역 쥐락의 공간성과 대상유적 검토

III. 동천하류역 출토 외래계 유물

IV. 동천하류역 쥐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V. 맺음말

국문 요약

본 글은 전남동부지역으로 지역권이 설정되는 광양지역 가운데 동천하류역의 3~6세기대 취락 형성과 전개과정에 대한 연구이다. 이 지역은 최근까지 지속적인 발굴조사 성과로 고고자료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존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광양 동천하류역 일대에서 조사된 3~6세기대 유적은 모두 7개소 10지점 정도이다. 유적별 성격을 분류하면 주거, 고분, 관방, 생산유구로 대별된다. 또한 이 지역은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점이지대의 성격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상기 내용들을 검토하였고, I ~ III기로 단계를 설정하여 광양 동천하류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I 기인 3세기대가 되면 토착집단은 평지로 주거구역을 확대하면서 활동하였고, 4세기 중엽이 되면 타 지역의 주거문화와 유물이 본격적으로 이입되어 점이지대의 성격을 띤다. 지리적으로 마한과 가야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이 늦었던 이 지역 집단은 이를 극복하고자 대외교역의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성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I 기인 5세기 전엽 이후 소가야계 유물은 타 정치체보다 압도적인 수량을 자랑하고 주거형태도 방형계로 바뀐다. 그리고 이 시기 마한계와 왜계 유물의 반입을 통해 백제→마한→가야→왜로 이어지는 해양 교통로에서 가교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천하류역 집단은 종전의 경제적 관계에서 벗어나 소가야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자체적인 물품 생산과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재지 수장묘 인 분구묘를 조성함으로써 토착집단의 정치적 신장을 짐작할 수 있다. 전남동부지역은 임나사현으로 비정되고, 광양 동천하류역이 모루의 중심취락으로 지목할 수 있다.

III 기인 6세기 전엽 이후 백제 고분군과 마로산성이 조성됨으로써 동천하류역의 토착집단은 백제의 직접지배 체제에 편입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치소로 기능함에 따라 광양지역의 중심취락으로 자리하였다.

주제어 :취락, 점이지대, 해양 네트워크, 가야, 마한, 백제

I . 머리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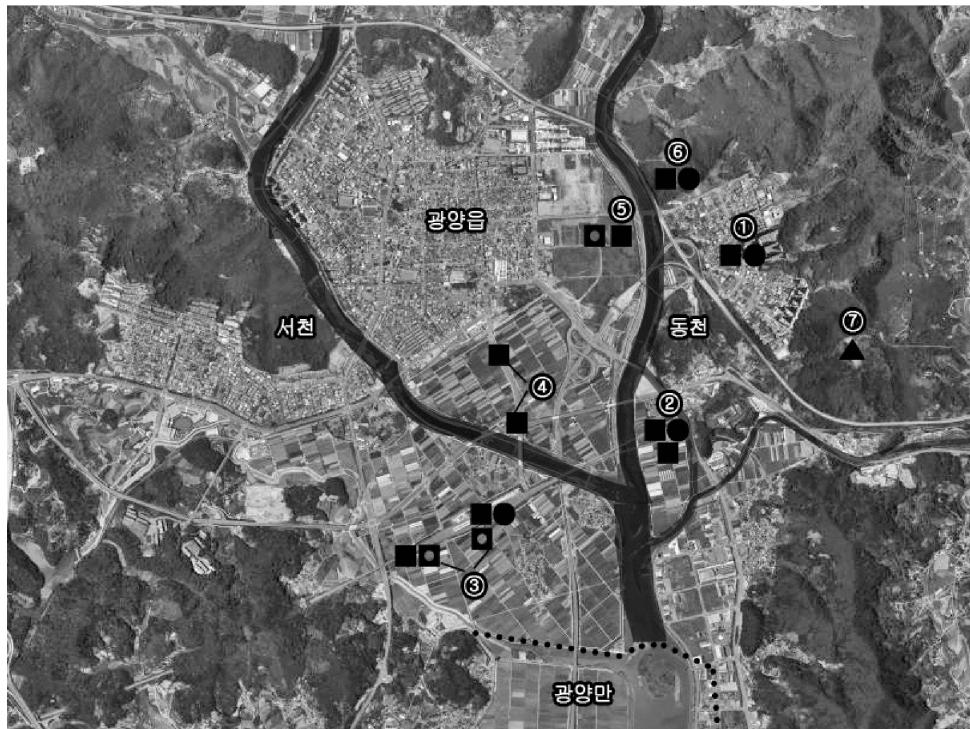
광양은 섬진강하류역의 이서지역이며 동쪽은 호남정맥의 자연지형으로 막혀있어 호남서부지역과 구분되는데, 전남동부지역 또는 호남동부지역으로 지역권이 설정된다. 이 가운데 광양 東川은 광양읍을 중심으로 동천과 서천이 흐르고 인동리의 남쪽에서 합류하여 광양만으로 연결된다. 지금까지 광양 동천하류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취락유적의 존재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의 연구성과도 여러 차례 제출되었으며 주로 주거유적의 검토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동희 2014; 김재훈 2019; 이기건 2020; 하승철 2022). 다만 근래까지 지속적인 발굴조사 성과로 고고자료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미진한 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기존 연구와 더불어 최근까지 축적된 자료를 활용한 검토가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광양 동천하류역 일대는 주거유적 뿐만 아니라 고분·관방·생산 등의諸요소가 포함된 복합적인 유적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취락은 좁은 의미에서 주거와 관련된 생활 요소를 말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확장하면 여타 인간 활동과 관련된 모든 요소(유구)를 지칭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이 지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천하류역에서는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었다. 계통적인 출처를 살펴보면, 가야계·마한계·왜계·백제 등 다양하다. 후술할 테지만 필자는 이를 이 지역 토착집단에 의한 해양 네트워크 형성과 정치체 변동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물질자료로 인식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우선 동천하류역 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 지역의 경관적인 특징을 개괄해볼 것이다. 경관은 산과 강, 대지 등으로 구성된 자연환경과 주거, 경작, 무덤, 생산 등의 인공적인 건축물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구성되는 경관의 형성은 그 자체로 의미화된 과정이다(김종일 2006: 123).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이 지역 집단이 자연환경을 어떻게 활용하고 경관조직을 누대에 걸쳐 구성했는지 다루고자 한다. 이후 각 유적의 성격을 주거·고분·관방·생산으로 구분하여 취락의 공간성을 함께 살펴본다. 그리고 출토유물의 검토를 통해 외래계 유물을 정리하고 연대 및 단계설정의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기에 따른 광양 동천하류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연구해 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Ⅱ. 동천하류역 취락의 공간성과 대상유적 검토

1. 유적현황과 경관적 특징



[도면 1] 광양 동천하류역 유적현황 (■ : 주거지 ● : 고분 ▲ : 산성 □ : 생산유구)

1. 광양 용강리유적 2. 광양 석정유적 3. 광양 도월리유적 4. 광양 인동리유적 5. 광양 목성리유적
6. 광양 용강리 산1~번지 일원 공동주택조성부지 내 유적 7. 광양 마로산성

지금까지 광양 동천하류역 일대에서 조사된 유적은 모두 7개소 10지점 정도이다. 유적별 성격을 분류하면 주거, 고분, 관방, 생산유구로 대별된다. 주거유적 같은 경우 주거지가 전체 약 664동 이상 조사되었다. 특히 광양 석정유적 · 도월리유적 · 인동리유적은 제한된 면적에서 주거지가 폭발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향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주거지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목성리유적과 용강리유적에서는 대규모 주거유적이 확인된다. 고분유적은 용강리유적 · 석정유적 · 도월리유적이 해당한다. 묘제로는 도월리에서 소가야식 분구묘, 석정유적에서는 잔존상태가 좋지 못하나 석곽묘 1기가 발굴되었다. 이보다 후행하는 용강리유적에서는 백제계 석곽묘와 석개토광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관방유적은 백제산성으로 동천하류역

의 동쪽에 위치하는 마로산성이 있다. 이 밖에도 생산유구는 도월리유적과 목성리유적에서 관련 유구들이 보인다.

[표 1] 광양 동천하류역 검토대상 유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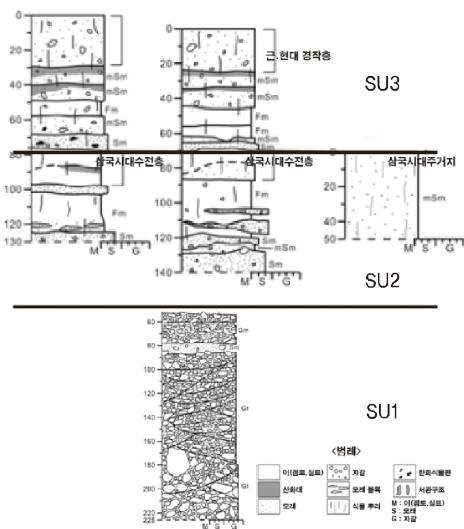
연번	유적명	유적성격	보고서 출처
1	광양 용강리유적	주거지, 고분	순천대박물관 2002
2	광양 석정유적	주거지, 고분	마한문화연구원 2009 대한문화재연구원 2012
3	광양 도월리유적	주거지, 고분, 생산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4	광양 인동리유적	주거지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8 전남문화재연구원 2018
5	광양 목성리유적	주거지	호남문화재연구원 2014 두류문화연구원 2021
6	광양 용강리 산1-1 공동주택조성부지내 유적	주거지, 고분	영해문화재연구원 2022 *약보고서
7	광양 마로산성	관방	순천대박물관 2005~2012

우선 대상유적 검토에 앞서, 종래 유구나 유적의 공간적 분포양상과 입지의 분석이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다면 본고에서는 이를 경관적인 의미로 이해해 보고자 한다.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동천하류역의 지형적인 요건은 북쪽으로 고산성의 산지로 폐쇄되어 있고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이 흘러 하류에서 넓은 충적지를 형성하면서 남해 광양만으로 진출한다. 주거지와 분구묘, 생산유구가 조사된 도월리와 바로 접하는 남쪽의 세풍리 일대는 유자섬이라는 지명에서 알 수 있듯이 과거 바닷물이 이곳 까지 들어왔던 (고)광양만 지역이다. 전체적으로 주거유적이 위치한 일대는 분포지 형상 하성평탄지에 속하고 현재 광양읍 중심지로는 선상지와 곡간지가 발달해 있는데, 1948년대 항공사진을 보면 동천하류역 주변으로 여러 소하천이 흐르고 있다. 주거구역의 공간적 분포양상을 유추할 수 있는 목성리유적을 예로 들면, 동천과 평행하게 주거군을 형성하면서 여러 군데로 군집을 이룬 양상이다. 이는 지형상 남-북으로 발달된 미고지와 자연제방을 접하는 위치에 마을이 형성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고환경적으로는 이 일대 충적지에서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을 통해, 늦어도 이 시기에는 동천의 유로를 갖추면서 곳곳에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한 미고지와 미저지를 형성하였다. 이는 삼국시대까지 큰 지형적 기복 없이 이어져 대규모 취락을 조성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목성리 일대 삼국시대 수전총의 식물구소체 분석을 살펴보면, 벼의 기동세포 기원의 부채형 구소체와 쌍봉형 구소체

가 검출되고 산출량은 약 1,300~90,000 개체/g의 범위¹⁾로 주거구역 주변으로 水田을 경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고환경적인 조건을 토대로 동천하류역 일대의 넓은 충적지에서는 주거구역, 주변과 서쪽의 평야에서는 밭, 논농사 등의 생업 경제활동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천하류역 서쪽의 충적지에서는 대규모 주거군을 이루고, 그 반대편 동쪽으로 용강리 일대는 현재 개발로 형질이 변경되었으나 분포지형상 저산성의 마로산에서 뻗은 가지 능선에 약 7~30° 경사도의 구릉에서 청동기시대~삼국시대에 이르는 주거지, 분묘유적들이 조사되었다. 1948년대 항공사진과 분포지형을 비교해보면 6세기 전엽~7세기 중·후엽의 고분군이 위치하는 용강리유적의 구릉은 대체로 원지형이 살아있지만 북쪽과 남쪽 일대의 구릉은 밭 경작과 민가가 들어서 있어 구릉의 윤곽만 대략 관찰된다. 따라서 이 구릉 주변으로 집단의 묘역을 조성하였다고 추정되지만 1948년 이전부터 이미 상당 부분 망실되었을 것이다. 다만 용강리 일대를 감싸는 마로산의 여러 구릉 가운데 원지형이 남아 있는 부분은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기두 고분군에서 석곽의 부재와 석곽묘 1기가 발견되었다. 또한 최근 이 일대 구릉의 발굴조사에서 6세기 중·후엽~7세기대의 고분이 조사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면 향후 주거유적과 시기적으로 동일한 고분군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용강리 일대의 구릉이 동천하류역 취락 조성집단의 묘역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퇴적단위	퇴적환경	고고학적시기
SU3	배후습지(시행천)	삼국시대 이후
SU2	범람원(사행천)	청동기~삼국시대
SU1	지갈질 망상하천	청동기시대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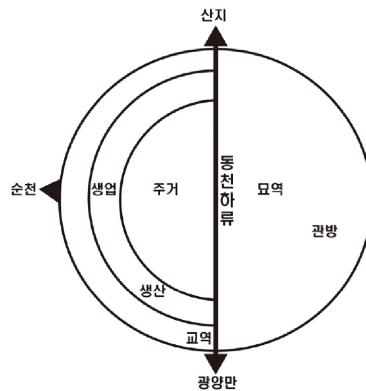
[도면 2] 동천하류역 목성리 일대 고지형 퇴적환경

(두류문화연구원 2021 수정후 재인용)

1) 이 결과는 두류문화연구원과 한국지질환경연구소에서 조사, 분석한 광양 목성유적 일대의 고환경, 수전층 식물 규소체 분석에 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벼의 기동세포 규소체가 3,000~5,000개체/g 이상의 밀도를 가지면 수전을 운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며, 시료 1개체를 제외하고 모든 시료에서 약 4,700개체/g을 초과하는 검출량이 나왔다.

동천하류역 남쪽으로 도월리와 석정리 일대는 자연환경적으로 목성리, 인동리 일대와 같은 충적지형으로 과거 이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던 점에서 광양만으로 출입하는 관문이었을 것이며, 고려시대 馬老浦가 이곳 주변에 위치한다. 따라서 삼국시대에도 도월리 일대가 동천하류역 집단이 교역하는데 있어 창구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으며, 주변으로 포구와 관련된 유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동천하류역 일대는 인간이 정주하기에 유리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누대에 걸쳐 집단의 경관을 형성하였으며, 사회체계를 갖추고 공간을 분할하여 활용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여러 세대를 걸친 조성집단 혹은 이를 대체한 집단은 긴 시간적인 흐름 속에 누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동천하류역의 경관조직을 구성하였던 것이다. 경관조직은 동천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생업활동을 하는 生者들의 공간, 집단의 묘역을 가시권에 두고 바라보면서 추모했을 死者들의 공간, 포구와 가까운 곳에서 생산하고 물류를 집산했을 공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면 3] 동천하류역 유적 경관 모식도

2. 대상유적 검토

1) 주거유적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크게 원형계와 방형계로 대별되며, 광양지역은 비교적 늦은 시기까지 원형계 주거지의 빈도가 높고 방형계 주거지의 유입이 느린데 경남서부지역의 주거문화와 공통성이 보인다(이동희 2014: 14). 동천하류역의 주거지 또한 이와 동일한 주거문화를 반영한다. 원형계 주거지는 5세기 전엽까지 이어지고, 이후 방형계 주거지로 주거형태가 교체되는데, 원형계 430동, 방형계 234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²⁾ 이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주거유적은 구릉지대에 위치한 용강리유적 일

2) 검토대상인 용강리유적은 4개 지구로 나누어 발굴조사 하였는데, 삼국시대 주거지는 관동‘가’지구에서 3동, 관동‘나’지구에서 청동기~삼국시대 128동, 기두‘가’지구에서 1동, 기두‘나’지구에서 48동이 조사되었지만 관동‘가’지구에 대한 보고서를 제외하고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동

대로 1세기부터이다. 평지의 도월리 · 인동리 · 목성리유적은 3세기부터 주거유적이 확인된다.³⁾

노시설은 부뚜막식과 쪽구들식이 있고, 대부분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부뚜막식은 벽면에 직교하게 설치된 것이 특징이고, 쪽구들식은 벽면의 일부를 둘러 친 것이다. 부뚜막식은 원형계와 방형계 주거지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방형계 주거지로 전환되면서 대부분 부뚜막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쪽구들식은 경남서부지역 원형계 주거지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며, 진주 평거동유적에서 분석 가능한 147동 중에 131동, 하동 횡천리유적에서 53동 중에 31동 등 남강하류역과 섬진강하류역에서 부뚜막식보다 높은 비율이다. 동천하류역에서 쪽구들식은 석정유적 · 도월리유적 · 인동리유적 · 목성리유적에서 확인된다. 분석 가능한 전체 72동 가운데 35동이 쪽구들식으로 부뚜막식과 비슷한 비율이다.⁴⁾

기둥배치는 대부분 기둥이 없는 무주식이지만 가야지역 내에서 지역성이 확인되는 원형계+벽주식이 용강리 산1-1 유적에서 조사되었다. 마한계 주거지의 특징인 4주식 주거지도 소수이지만 용강리유적 · 도월리유적 · 목성리유적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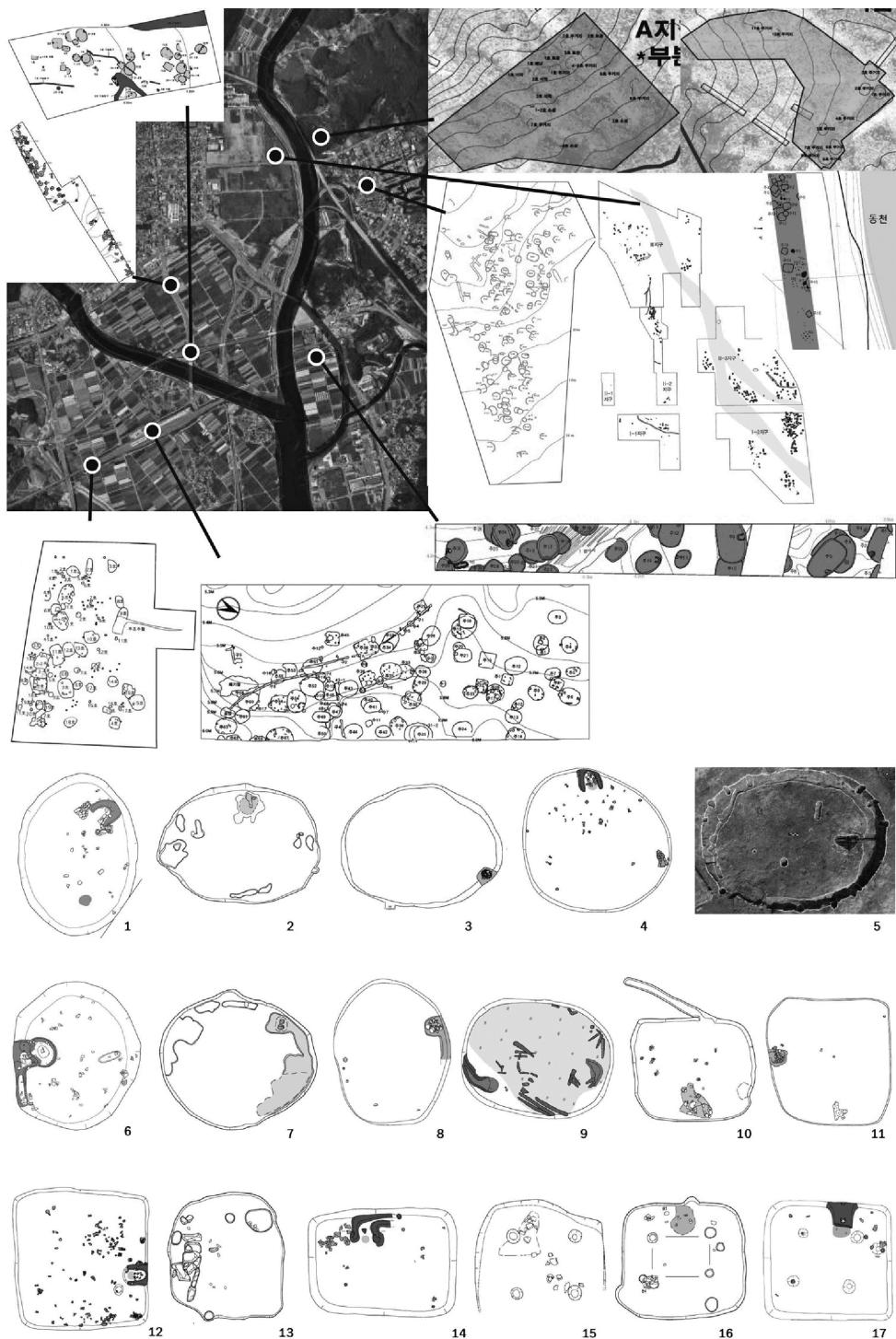
이 외에 출입시설의 돌출유무에 따라 돌출형을 마한계, 비돌출형을 가야계로 구분하기도 하고(박미라 2019; 하승철 2022), 내부에 장타원형수혈 같은 구조는 마한계의 주거 내부시설로 볼 수 있다.

동천하류역 주거유적의 원형계 주거지는 1세기대부터 보이지만 중심연대는 3세기~5세기 전엽이다. 방형계 주거지는 4주식인 도월리 Ⅱ-11호 주거지 출토 완형무투창고배를 통해 적어도 4세기 중엽~후엽에는 출현하지만 산발적이다. 특히 4주식 주거지는 동천하류역 전역에서 소수로 확인되는 양식이지만 마한계 주거지가 4세기 중엽 이후 가야계 유물을 공반하면서 등장하는 점이 주목된다. 5세기 전엽 이후 방형계 주거지가 원형계 주거지를 대체하면서 주류 주거문화로 위치한다. 원형계 주거지는 거의 조성되지 않으며 적어도 6세기 전엽 이후까지 동천하류역에서는 방형계 주거지로 이어진다.

희(2014: 15)는 166동 가운데 1~5세기 주거지로 원형계 93동, 방형계 21동으로 분류하여 이를 차용하였다.

3) 인동리(동)유적 보고자는 10호 주거지 출토 장동옹의 저부의 형태를 말각평저로 보고 1세기 말~2세기 말로 편년하였으나, 필자는 동하위에서 저부로 내려오면서 경계가 애매한 것을 말각평저로 분류하고 저부의 기벽이 두껍고 경계가 뚜렷한 형태를 굽상평저로 본다. 인동리 10 · 15호 주거지 출토 장동옹은 모두 저부의 기벽이 두꺼운 굽상평저로 정효은(2015)의 편년에 따르면 3세기 말 이후이다.

4) 노시설 분석은 필자가 분류한 것을 기준으로 했음을 밝혀둔다(이기진 2020: 106~115). 형태는 남아 있지 않지만 노지나 지각의 위치로 보았을 때 쪽구들을 사용했던 주거지가 더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도면 4] 동천하류역 주거유적 유구배치도 및 주거구조 형태에 따른 조합양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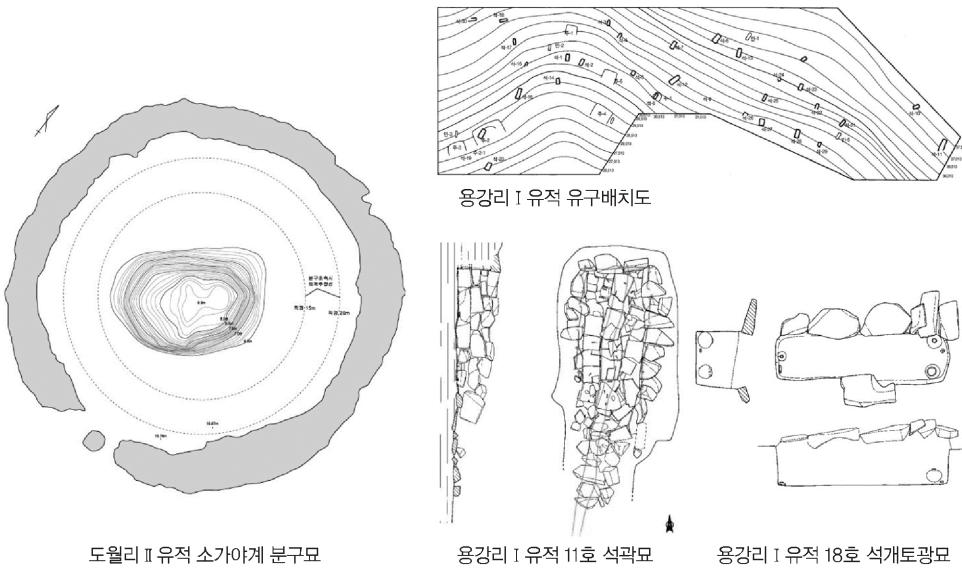
1.석정(대) 16호주, 2.도월리 Ⅱ 6호주, 3.인동리(동) 10호주, 4.목성리(두) I-2-61호주, 5.용강리산-1 B-3호주, 6.석정(대) 31호주, 7.도월리 Ⅱ 23호주, 8.인동리(동) 6-2호주, 9.목성리(두) I-2-76호주, 10.도월리 Ⅱ 18호주, 11.인동리(동) 3호주, 12.목성리(두) II-3-54호주, 13.도월리 I 4호주, 14.목성리(두) I-2-16호주, 15.용강리 I 1호주, 16.도월리 Ⅱ 11호주, 17.목성리(두) II-3-87호주(축척부동)

2) 고분유적

동천하류역에서 3세기~5세기대 고분은 명확하지 않고, 다만 석정(대)유적에서 장방형의 두형토기가 부장된 석곽묘 1기가 확인되었다. 이는 전남동부지역 전역으로 보아도 4세기~5세기대의 고분은 토광묘만 소수로 확인되며, 영산강유역이나 가야지역보다 더딘 사회발전상을 반영한다.

도월리유적에서 확인된 분구묘는 소가야계로 북동쪽으로 주거지가 밀집 분포하고 (고)광양만과 약 1.3km 정도 떨어진 곳에 조성되었다. 현재는 단독이나 보고자는 마을 주민의 전언으로 “경지정리 전에는 이러한 고분이 몇 기 더 존재했다가 훼손되어 없어지고 고분 위에 민묘를 조성하였는데 대형의 칼 등이 나왔다”라고 하였다. 후대에 훼손과 삽평이 반복되면서 분구는 축소되었으나 추정되는 직경은 20m로 분구 주변을 감싸는 원형의 주구가 돌아간다. 매장주체부는 분정의 훼손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묘실의 바닥석으로 보이는 석재와 소가야계 개 등이 퇴적층에서 출토되었고, 지상식의 매장주체부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주구는 남쪽으로 개방된 형태인데 분구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보이며, 이곳에 수혈 내부에서 수평구연호편이 출토되어 제의와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있다. 주구 내부에서는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소가야양식 유공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석곽묘는 동천하류역 동편에 마로산에서 뗀은 가지능선 상에 조성되었다. 용강리 I 유적에서는 30기, 용강리 산1-1유적에서는 3기가 확인되며, 백제계 또는 신라계이다. 주축방향은 등고선과 직교하는데, 가야지역이나 인근의 여수 죽림리 차동유적 소가야계 석곽이 등고선과 평행하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는 백제지역의 조성 방식이다. 광양지역 주변 가야계 석곽묘는 장폭비 3:1~4:1로 세장방형이 많고, 백제계 석곽묘는 장폭비 3:1 미만 장방형(하승철 2022: 53)으로 용강리유적 석곽묘도 폭이 다소 넓은 장방형이다. 구조는 수혈식과 횡구식으로 추가장이 이루어진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백제유물은 단경호·병·관고리·관못 등이고, 신라유물은 인화문 유개합, 대금구 등으로 6세기 전엽~7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된다. 11호 석곽묘는 바닥에 구를 파서 배수구를 내고 암키와를 바닥 전면에 깔았는데 내면에 승석문이 있는 마로산성의 기와와 동일하고 순천 죽내리 성암고분에도 이와 같은 형식이 있다. 주목되는 것은 6세기 전엽~중엽의 18·30호 석개토광묘로 유물은 백제 토기이며, 6세기 전엽 이후 백제에 편입된 후에도 재지계의 토광묘 전통이 남아있는 과도기적인 양상이 확인된다. 20호 석곽묘 출토 대금구는 7세기 중·후엽으로 편년되며 신라와의 연



[도면 5] 동천하류역 고분유적(축척부동)

관성을 일부 찾을 수 있다.

3) 관방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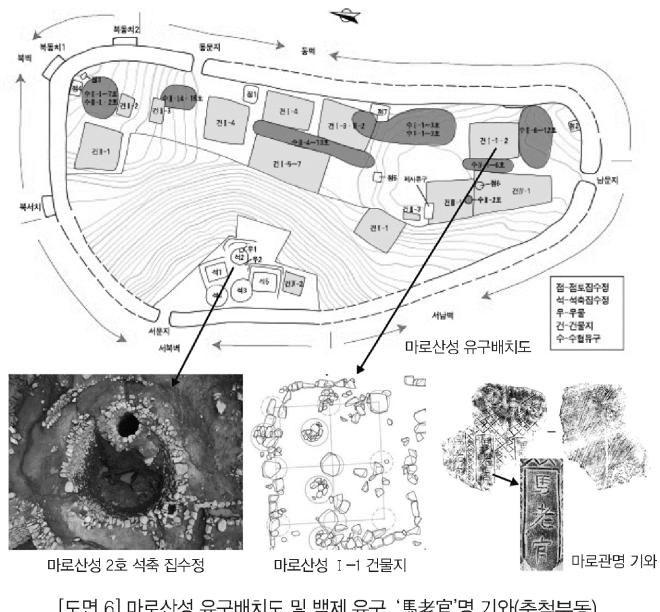
삼국시대 산성은 생활근거지에서 가깝고 유사시 즉시 입성하여 농성할 수 있는 비교적 높지 않은 산에 위치하며, 방어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통치기능을 겸한다(박태홍 2007). 동천하류역의 관방유적으로는 馬老山城이 있다. 마로산성은 용강리유적의 남동쪽으로 해발 170~209m 선상에 위치하고 둘레 550m 정도의 내·외면을 돌로 쌓은 협축식 城으로, 이는 전남동부지역 내 백제산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 성내에는 남쪽과 북쪽의 모서리 부분이 높아 주변을 살피기에 유리하고, 남문지에서 평坦하게 뾰족한 지형에 건물지가 조성되어 있다. 또한 동문지 부근을 중심으로 평탄한 지형에 건물지·수혈·점토 집수정이, 서쪽은 급경사면으로 떨어지다가 서문지 부근의 비교적 평탄한 곳에 건물지·석축 집수정·우물 등이 배치되어 있다. 성 아래로 용강리·석정·도월리·인동리·목성리가 한눈에 들어오며, 남문지에서 바라봤을 때 남서쪽으로 약 8.5km 떨어진 곳에 백제산성인 순천 견단산성과 가시권을 공유하고 세풍리 일대의 (고)광양만이 조망 가능하다. 5차례의 발굴조사로 백제시대에 해당하는 유구로는 건물지·집수정·수혈·저장공 등이 있으며 통일신라시대 유구

들과 중복관계이거나 폐기 이후 축조된 유구들이 혼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물지는 모두 17동으로 이 중 백제 건물지는 I-1호, III-3호, IV-2호의 3동이며 나머지는 통일신라시대인 9~10세기대이다. 초축시기는 산성 내 백제 건물지와 집수정을 통해 6세기대로, 용강리유적에서 조성된 6세기 전엽

의 백제계 석곽묘를 통해 이 시기에 산성을 축성하여 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목되는 것은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명문기와로 ‘馬老官’, ‘末官’, ‘官年末’, ‘甲全官’, ‘軍易官’명 등이며, 특히 ‘마로관’명 기와를 통해 『삼국사기』에 기록된 馬老縣과 일치하는 지명⁵⁾이 고고자료로 실증되었다.

4) 생산유구

동천하류역에서는 생산과 관련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된다. 도월리 I 과 II 유적에서는 방형계에 길게 뻗은 구가 있는 주조공방과 주조관련 수혈이 조사되었다. 주조공방은 선축된 9호 대수혈을 파괴하고 조성되었는데, 대수혈 내 점열문 뚜껑편을 통해 적어도 5세기대에 기능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유구 내 송풍관편 · 노 벽체편 · 입상재 · 슬래그가 출토되었다. 주조관련 수혈에서는 주조철부 토제용법과 도가니 뚜껑 등이 수습되었다. 또한 인근의 방형계 주거지에서는 석재모루나 숫돌 등이 출토되고 있어 도월리 일대가 철 생산과 관련된 집단의 공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도월리 일대의 범위는 좁은 면적에서 조사되었지만 76동의 주거지가 밀집하고 쟁지 수장층의 분구묘 등이 있으며, (고)광양만과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이곳에서 대외교역과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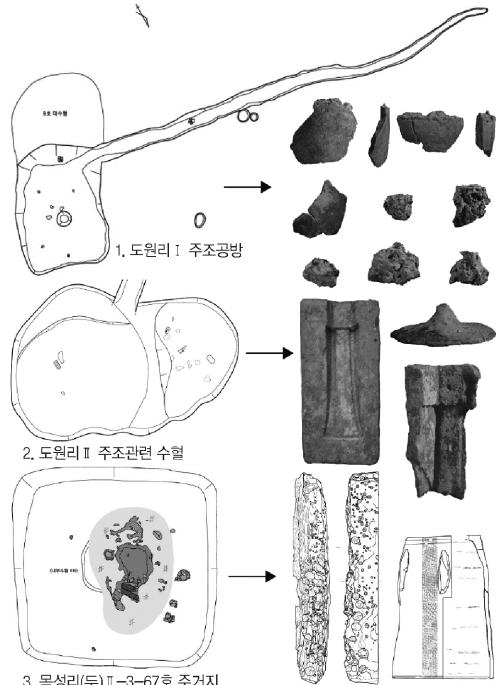


[도면 6] 마로산성 유구배치도 및 백제 유구, '馬老官'명 기와(축척부동)

5) 『三國史記』卷36 雜志 第5, “睇陽縣, 卒百濟馬老縣……”.

련된 철기류를 생산하고 반출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목성리 일대에서도 생산과 관련된 공간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목성리 주거구역은 동천과 평행하며 소하천 내 미고지의 여러 군데로 분포하고 있다. 이 가운데 목성리(두) II-3 지구의 67호 방형계 주거지에서 발화구 대석·연통형토기를 비롯하여 생산 관련 수혈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67호 주변 주거지에서는 숫돌과 철검·철부·철촉·철도자·철협 등의 철기류 등이 다량 출토되어 이곳이 동천하류역 집단 내 철과 관련된 장인들의 거주 공간 중에 하나로 생각된다.



[도면 7] 동천하류역 생산유구 및 출토유물(축척부동)

III. 동천하류역 출토 외래계 유물

1. 외래계 유물 검토

전술한 바와 같이 동천하류역에서는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가야계·마한계·왜계·백제 등 다양하다. 대부분의 유물은 주거유적에서 수습되었고, 백제 유물은 고분유적과 마로산성에서 출토되었다. 이번 장에서는 외래계 유물을 검토해보고 II 장과 종합하여 연대 및 단계를 설정해보고자 한다.

1) 가야계 유물

동천하류역 유적에서 출토된 가야계 유물은 외부에서 반입되었거나 현지에서 모방한 것으로 계통적으로는 아라가야계·소가야계·대가야계·창녕계 등이다. 이 가운데 아라가야와 소가야의 유물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5세기 전엽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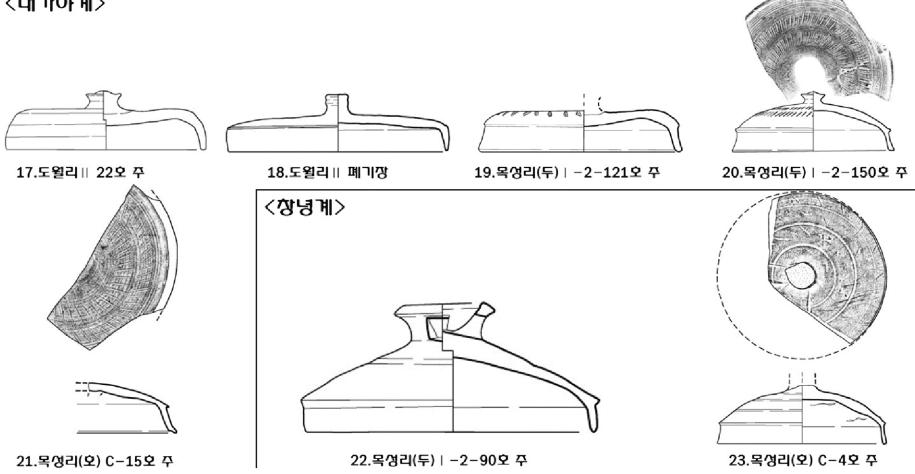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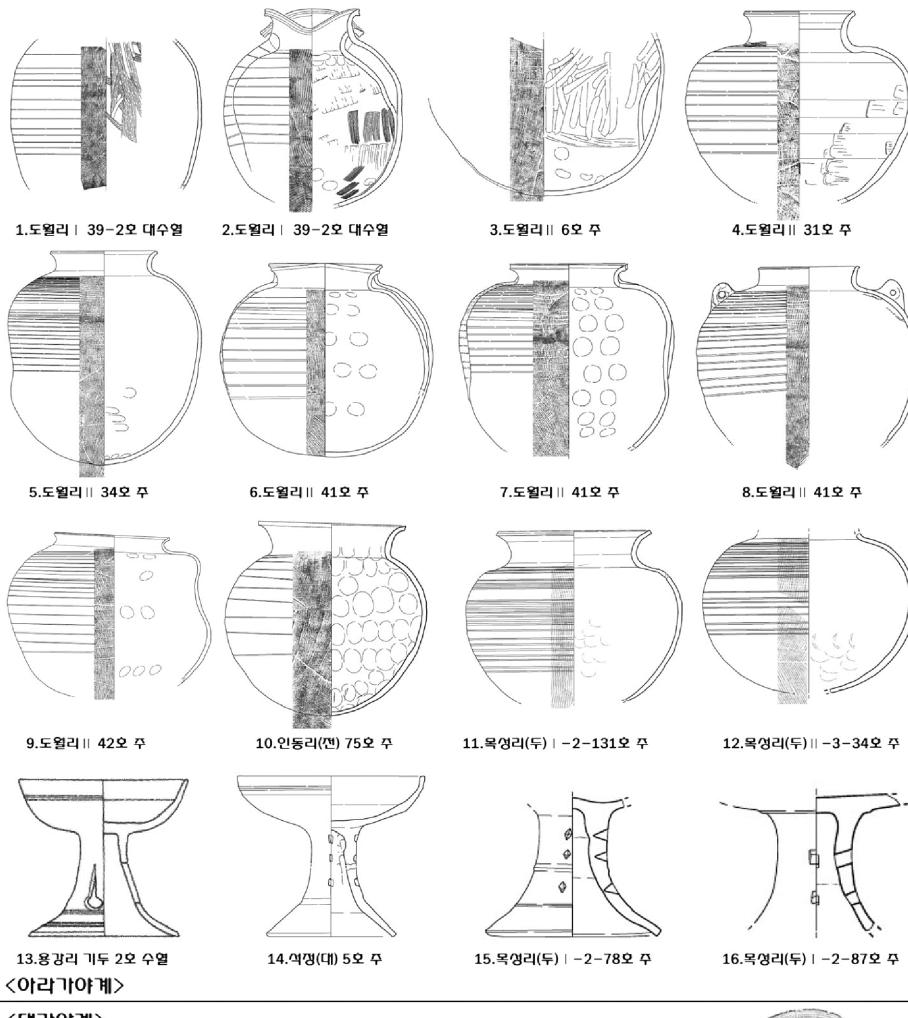
후가 되면 소가야계 유물의 출토 수량이 많다.

먼저 아라가야계는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승문계타날호와 통형고배로 대표되는 기종이 확인된다. 분포권은 경남서부지역은 물론 광양, 여수, 고흥과 영산강유역의 영암 만수리유적, 장흥 상방촌유적에서도 철정이 출토되어 아라가야가 남해안을 따라 교역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아라가야계 유물은 주거지와 분묘에서 산발적으로 출토되고, 함안지역과는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어 정치적 확대보다는 경제적 관계로 볼 수 있다(조근우 2019: 59). 동천하류역에서는 용강리 기두유적·석정유적·도월리유적·인동리유적·목성리유적에서 승문계타날호, 통형고배, 화염형투창고배 등이 출토되었다. 승문계타날호는 구연부가 외반하고 견부가 강조된 것도 있지만 대부분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형성, 저부는 원저이다. 타날은 초기에 승석문에서 승석문과 승문이 공존하다가 후기로 갈수록 승문과 평행문이 시문되는데, 동천하류역 출토품은 모두 승문이다. 이러한 형식은 정주희(2008: 21~27)의 편년안에 따르면 C식으로 4세기 3/4분기에 해당한다. 주거지는 말각방형인 도월리Ⅱ 41호 주거지 외에 모두 원형계 주거지이고 공반되는 유물을 통해 보면 4세기 중엽~후엽으로 편년이 일치한다. 통형고배는 모두 3점으로 대각만 잔존하는 목성리(두) I -2-78 · 87호 주거지를 제외하고 거의 완형에 가까운 석정(대) 5호 주거지 출토품을 살펴보면, 구연은 직립, 배신은 약간 각이 지지만 둥글게 처리, 대각은 통형으로 내려오다가 팔자형으로 벌어지고 장방형의 투공을 뚫었다. 이는 함안 황사리 44호분 통형고배와 유사하며, 4세기 중엽~후엽으로 편년된다. 다만 말각방형에 가까운 주거지의 형태와 공반되는 유물로 보았을 때 4세기 후엽~5세기 전엽까지 볼 수 있으며, 목성리 출토 통형고배 또한 대각의 형태와 투공장식으로 보았을 때 비슷한 시기이다. 화염형투창고배는 용강리 기두 2호 수혈에서 출토되었는데 원형에 가까운 화염부에 꼬리가 짧고 2조 돌대가 있다. 이는 함안 도항리(문) 10호분 화염형투창고배와 비교되며,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이상 동천하류역에서 출토되는 아라가야계 토기는 4세기 중엽~5세기 전엽에 집중되고, 5세기 전엽을 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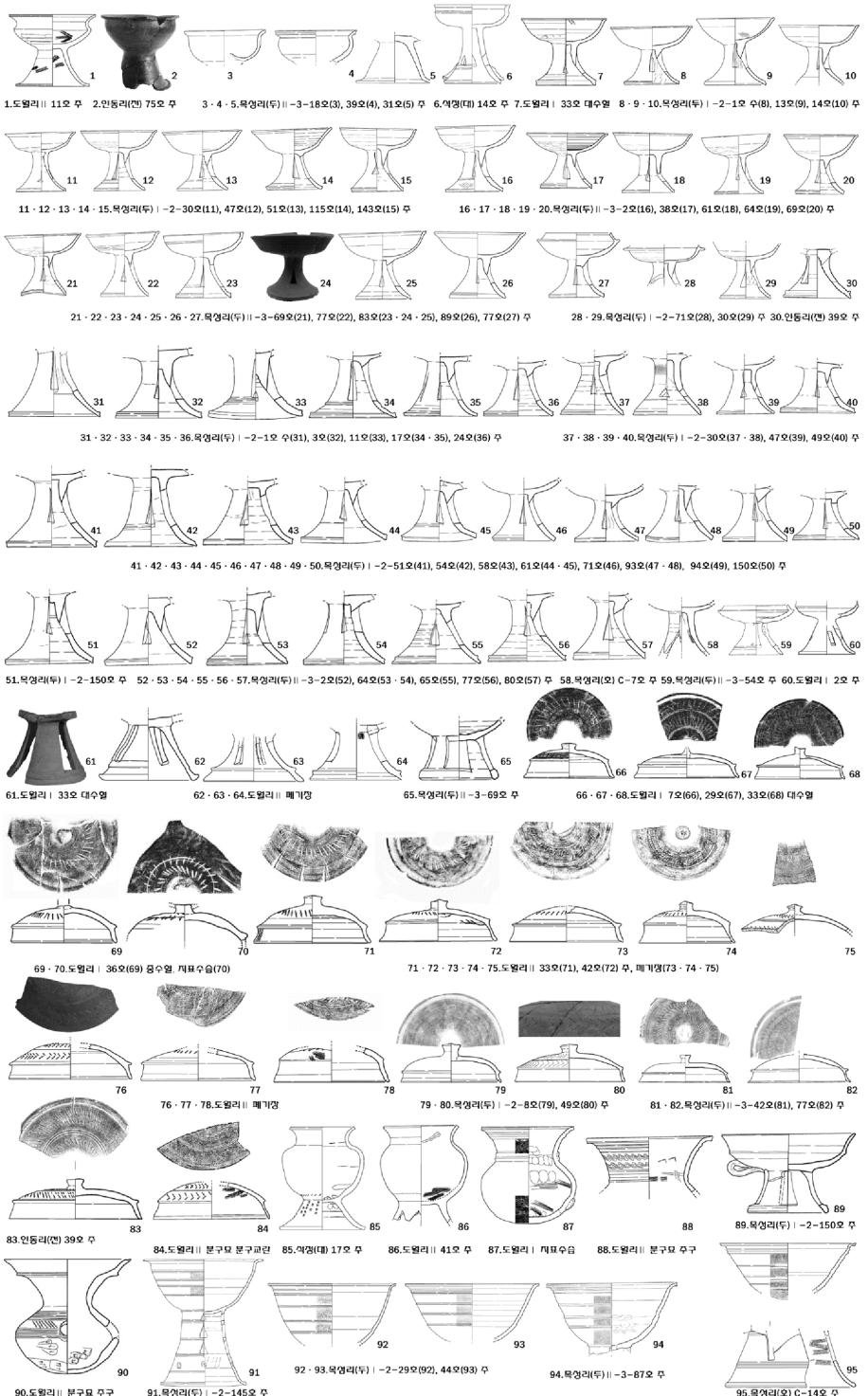
소가야계는 고식도질토기 단계의 4세기대를 대표하는 완형무투창고배와 5세기 대가 되면 지역양식토기의 정립으로 삼각투창고배·일단장방형투창고배·수평구연호·파수대부완·발형기대·개 등 동천하류역 주거지 내에서 여타 가야계 유물보다 압도적인 수량을 자랑한다. 완형무투창고배는 거창·함양·진주·사천·하동 등 경남서부지역 주거유적에서 특징적으로 확인되며, 동천하류역에서는 도월리유적·인

동리유적·목성리유적에서 출토되었다. 배신의 형태는 다양하나 대체로 깊고, 구연은 외반, 대각은 사선방향의 팔자형으로 벌어진다. 도월리Ⅱ 11호 4주식 주거지를 제외하고 모두 원형계 주거지로 인동리 75호 주거지에서는 아라가야 승문계타날호와 공반되고, 대부분 경질무문의 생활용토기와 함께 출토된다. 삼각투창고배는 무개식과 유개식이 있고 완형 기준으로 무개식이 많다. 삼각투창의 형태는 다양하고 시기성을 반영하는 것은 돌대 유무, 구연단부 형태, 기고 등이 있다. 하승철(2015: 15~17)의 분류에 따르면 돌대는 있는 것에서 없는 것으로 변화하는데 5세기 2/4분기가 되면 돌대가 없는 삼각투창고배가 유행한다. 동천하류역 출토 삼각투창고배는 5세기 전엽~후엽까지의 속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수평구연호는 도월리Ⅰ 유적에서 지표수습되었고, 기고 18.9cm, 구경 17.4cm, 경부에 2조 돌대를 돌리고 파상문을 시문했다. 이는 순천 운평리 2호 토광묘 출토 수평구연호와 비교되며, 연구자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5세기 중엽~후엽으로 편년된다. 파수대부완은 목성리(두)Ⅰ-2-150호 출토품으로 배신이 각지게 꺾이다가 구연으로 올라가면서 외반하고 파수, 대각의 형태로 보아 진주 가좌(산39-6) 8지구 4호, 무촌 2구 85호분 출토품과 유사하다. 이는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고 가야지역에서 직접 반입된 물품으로 볼 수 있다. 발형기대는 편으로 출토된 것이 많지만 배부가 깊고, 3~4조의 돌대를 돌려 파상문을 시문하였고, 구연이 수평화되었다. 소가야양식 개의 특징은 점열문이 시문되고 상하로 엇갈리게 배치하는 ‘〈’자상이다. 꼭지는 단추형에 중앙이 살짝 올라오거나 오목한 것이며, 드림턱은 돌출된다. 하승철(2015: 25~26)의 분류에 따르면 기고는 점차 낮아져 4cm 이하, 문양은 3단·2단→2단·1단→1단, 구경은 15cm 내외에서 13cm 이하로 줄어든다. 동천하류역 소가야계 개는 5세기 중엽~6세기 전엽까지이다. 도월리 분구묘 주구 내부에서는 유공광구소호 1점이 출토되었다. 구연단부 내측에 1조의 요철을 돌리고, 구경부는 장경화 되어 동최대경보다 크며, 동최대경은 동중위에 형성된 편구형에 저부는 원저이다. 이러한 형태는 전형적인 소가야양식 유공광구소호의 특징이며,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이유진 2008: 54).

대가야계는 도월리유적과 목성리유적에서 출토된 개 5점이다. 대가야계의 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꼭지의 중앙 부분이 솟아오르고 유두형, 중산모형이 부착되며, 개신은 점열문 또는 유충문이 시문되고 완만하게 펴져 편평한 형태로 변한다(이희준 2008: 120). 동천하류역 출토 개의 특징을 살펴보면, 목성리(두)Ⅰ-2-150호 주거지 개는 꼭지가 단추형에 중앙이 솟아있고 점열문이 2단으로 시문되어 있다. 전체적인



[도면 8] 동천하류역 출토 아라가야계 · 대가야계 · 창녕계 유물(축척부동)



[도면 9] 동천하류역 출토 소가야계 유물(축척부동)

기형의 형태는 하동 우복리 5호분과 유사하며, 공반되는 소가야계 파수대부완이 5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데 5세기 후엽~6세기 전엽까지 볼 수 있다. 도월리 Ⅱ 22호 주거지 · 폐기장, 목성리(두) I -2-121호 주거지 출토품은 개신이 편평한 편이고 꼭지는 단추형에 중앙이 솟아오른 형태와 유두형이 있다. 목성리 개는 유충문이 시문되어 있다. 이는 여수 고락산성 구상유구, 순천 운평리 M5호분 출토 개와 유사하며 6세기 전엽으로, 다만 조잡하게 제작되어 모방제품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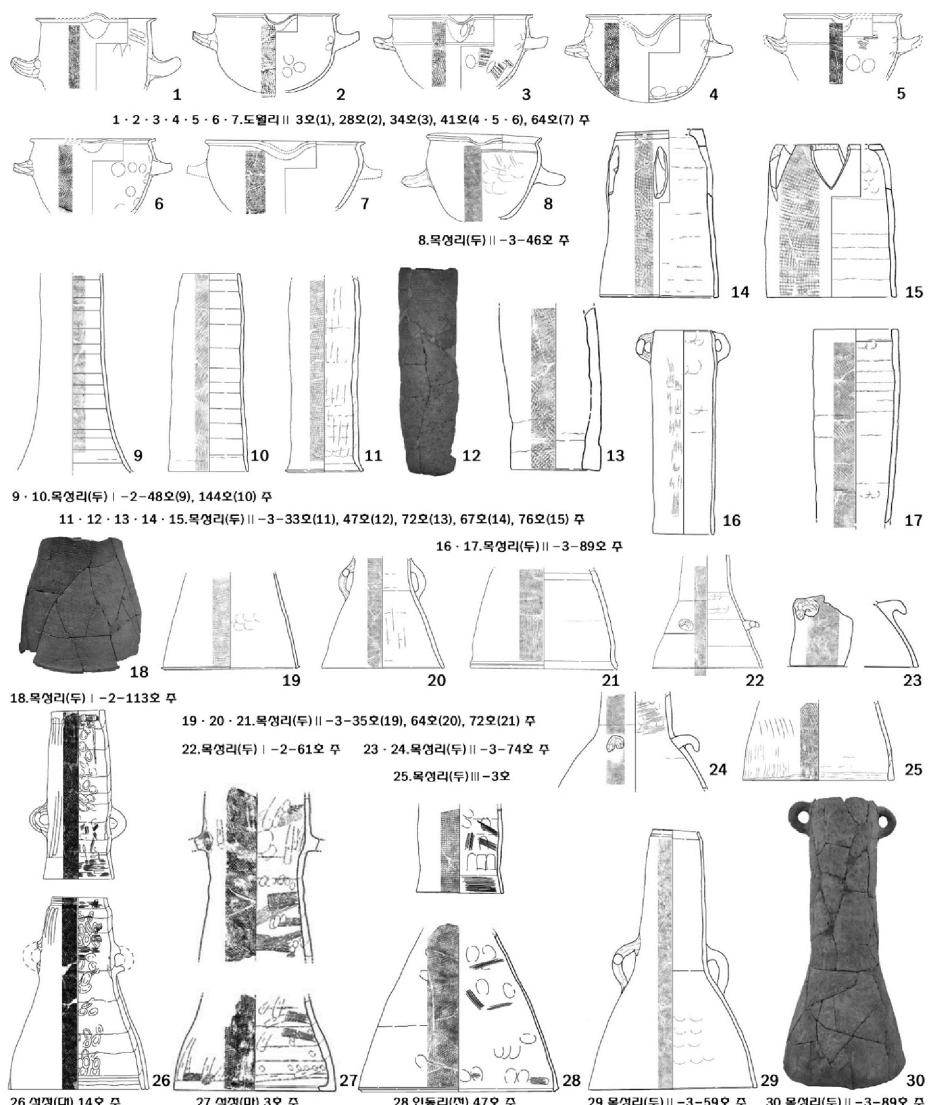
창녕계는 목성리유적에서 출토된 개 2점이다. 목성리(호)C-4호 개는 꼭지가 파손되었지만 유충문이 시문되었고, 5세기 중엽으로 편년된다. 목성리(두) I -2-90호 주거지 개는 대각도치형으로 창녕과 신라지역의 특징적인 형태이다. 꼭지의 구연은 곡선형을 띠면서 직립하고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 방형의 투창, 개신은 낮은 편이다. 이는 5세기 2/4분기로 편년되는 창녕 동리 1호 석곽묘 개나 5세기 4/4분기 또는 그보다 후행하는 창녕 교동 62호분 출토 개(110)와 형태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다만 목성리 출토품은 전체적으로 조잡하고 창녕계 개에서 나타나는 유충문 같은 문양이 없는 점으로 보아 모방제품일 수 있다. 신라산일 가능성은 여수 화장동 나-3호, 둔전 12호 주거지와 같이 5세기 중엽~후엽 전남동부지역에서 출토된 대각도치형 개가 모두 창녕계인 점에서 목성리 출토품도 창녕지역과의 교역에서 수입했거나 모방한 제품으로 보인다.

2) 마한계 유물

동천하류역에서 출토된 생활용토기는 호남지역과 경남서부지역 내에서 기종의 구성이나 형태 등에서 크게 차이가 없어 계통적인 출처를 찾기 어렵다. 다만 마한지역의 특징적인 기종으로 알려진 유물이 동천하류역에서도 확인되는데, 주구토기와 연통형토기가 있다.

주구토기는 구연에 액체를 따르는 주구가 부가된 토기로, 마한지역은 보통 바닥이 둥글고 동중위 또는 중상위에 파수를 부착하고, 구연부의 직경을 넓게 한 것이 일반적이다(김은정 2017: 136). 생활용토기는 시기적인 범위가 넓고 주구토기 또한 마찬가지다. 형태적인 속성 가운데 유의미한 것은 파수형태, 구연 형태, 저부 형태, 타날 등이 있다. 김은정(2017: 209~215)의 편년을 참고해보면, 마한지역 주구토기는 구연은 외반 또는 직립하고, 저부는 원저, 파수는 봉형 · 우각형 · 절두형이 부착되고 타날은 격자문계가 대부분으로 2세기대부터 4세기 중엽까지이다. 동천하류역에서

는 도월리유적과 목성리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원형계 주거지로 구연은 외반하고 저부는 원저이며, 파수는 봉형·우각형·절두형이 모두 있으며 타날은 무문 1점을 제외하고 격자문계이다. 공반관계로 살펴보면, 도월리 II 3호 주거지 주구토기는 무문에 함께 출토되는 유물도 경질무문토기이므로 가장 이른 시기이고, 34호와 41호 주거지는 아라가야 승문계타날호와 공반된다. 호남동부지역은 복합사회로의 진전이 늦은 지역(이동희 2014: 18~19)으로 토기에 있어서도 변화상이 느리며, 동천하류역의 주구토기 또한 기준 연구의 4세기 중엽보다 후행하는 4세기 후엽까지 볼



[도면 10] 동천하류역 출토 마한계 유물(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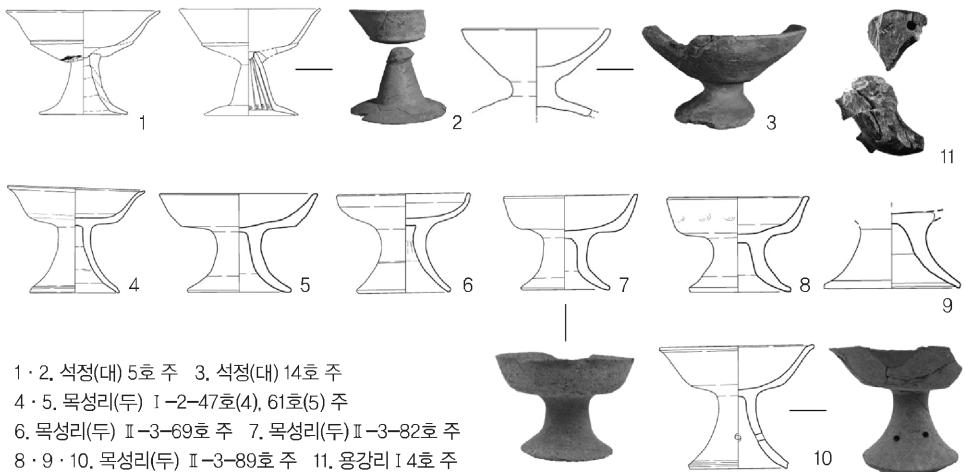
수 있다.

연통형토기는 부뚜막에서 연기를 배출하는 기능을 가진 토제품으로 배수관이나 부뚜막의 지주로도 사용하였다(최영주 2009: 40). 제작기법에 따른 형식설정이 가능하며, 정일(2012: 254~255)의 분류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원통형인 것은 상부가 내만, 직립, 상부를 막고 측면에 구멍을 뚫은 것이 있다. 다음은 상부와 하부를 결합하는 구조로 하부는 플라스크 또는 팔자형으로 벌어지고, 다시 파수의 형태나 부착유무로 분류한다. 또 상부는 내만하면서 돌대가 부착되고 하부는 플라스크형인 형태도 있는데, 인근의 마로산성에서 출토되었다. 동천하류역에서는 원통형과 하부 플라스크형이 확인되고 파수가 부착된 것은 우각형과 고리형으로 타날은 격자문계가 다수이나 평행문도 타날되었다. 대부분 방형계 주거지에서 출토되었고, 원형계 주거지인 석정(대) 14호 주거지 같은 경우 공반되는 이른 시기의 소가야계 삼각투창고배와 왜계 하자키로 보았을 때 5세기 전엽 무렵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 원형계 주거지에서는 원통형 연통이 출토된다. 출토품의 속성을 반영한 형태는 정일의 분류에서 II A식의 상·하부 결합구조에 플라스크형이 더 많고 시기는 5세기대로 정확한 편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목성리(두) II -3-64 · 76 · 89호 방형계 주거지에서 5세기 중엽~후엽의 삼각투창고배가 공반된다. 그리고 67호 주거지에서는 동체부 상위에 5개의 타원형 투공을 뚫은 형식인데, 여수 둔전 25호 주거지 출토품과 같은 형식이고 25호에서 공반되는 소가야계 개로 보았을 때 5세기 중엽 이후로 편년된다.

3) 왜계 유물

동천하류역 유적에서 출토되는 왜계 유물은 하자키계 고배와 용강리유적에서 나온 모자곡옥 등이 있다.⁶⁾ 하자키계는 반입품이거나 재현, 모방품으로 구분된다. 계보는 布留式계와 山陰계로 분류할 수 있고, 山陰계는 대부분이 호형토기(井上主税 2007: 154)로 동천하류역 출토 고배는 布留式계에 속한다. 영남지역에서는 4세기대

6) 하자키는 기본적으로 연질소성이며, 판별기준으로 조정기법 가운데 깎기, 목리, 마연, 조으기, 목판긁기 등이 있고 대각 상부를 배신 내부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접합한다. 또한 형태적으로 배신에 능이 지고 구연부가 길게 외반하는 형태와 배신이 반구형을 이루는 것이 있으며, 대각은 하위에서 꺾여지면서 벌어진다(안재호 2005: 조성원 2016). 1차적으로 연질소성 고배를 분류하였고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출토품을 살펴보았다. 다만 필자의 부족함과 유물을 실견하지 못하였기에 보고서의 유물원고와 사진을 기준으로 판별하였음을 이해 부탁드린다. 아울러 목성리(두) I-2-41호 주거지에서도 곡옥이 출토되었는데, 외부에서 반입한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이 역시 필자가 제통적인 출처를 밝힐 수 없어 각주로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도면 11] 동천하류역 출토 왜계 유물(축척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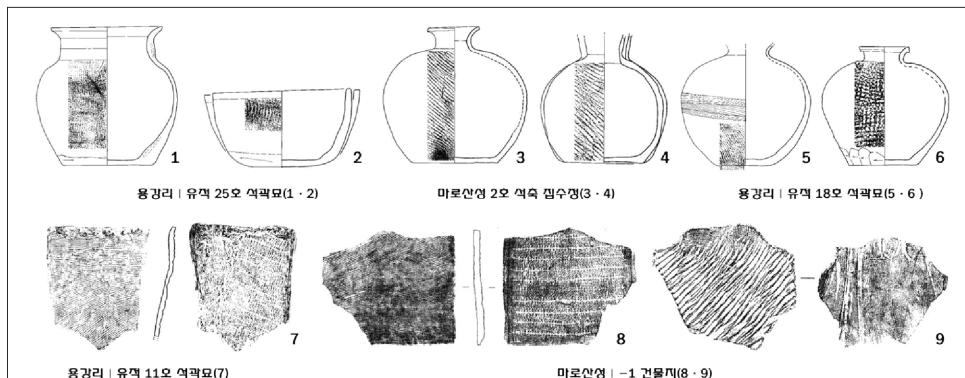
가 되면 고식도질토기 단계로 연질소성은 소량이며, 취락유적 출토 하지키계는 반입 품 또는 재현품이 많다.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는 고배류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와 마산, 진해, 거제, 광양 등의 남해안 일대를 따라 분포범위가 확대된다(조성원 2016: 159~160). 기존에 알려져 있듯이 광양에서는 동천하류역의 석정(대)유적에서 하지키계 고배가 보고되었으며, 원형계 또는 말각방형의 주거지에서 출토되었다. 공반되는 유물은 5호 주거지에서 아라가야계 통형고배, 14호 주거지에서 소가야계 삼각투창고배가 있으며, 4세기 중엽~5세기 전엽 가운데 5세기 전엽으로 판단된다. 이후 조사된 목성리유적에서도 하지키계 고배가 출토되었는데, 61호(두) 주거지를 제외하고 모두 방형계 주거지로 61호 출토 삼각투창고배의 형식으로 살펴봤을 때 5세기 전엽으로 보인다. 출토된 하지키계 고배들은 구연은 외반하며, 배신은 반구형에 하위 깎기흔, 내면은 조으기흔 등이 공통적인 요소이다. 특징적인 점은 분석이 곤란하여 제외한 연질고배류가 대부분 소가야계 삼각투창고배와 공반되며 하지키계로 분류한 유구에서도 삼각투창고배가 함께 출토되었다. 하지키계의 하한은 대체로 5세기 전엽이지만 목성리(두) II-3-82호 주거지에서 평행문계 장동옹과 공반되는 것으로 보아 5세기 중엽까지도 볼 여지가 있다. 모자곡옥은 용강리유적 4호에서 1점 출토되었고, 방형계 주거지로 보고자는 5세기대로 보았다. 왜계 유물은 동천하류역 집단이 교역, 교통상의 기착지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려주는 물질자료 가운데 하나이며 후술할 내용을 통해 다시 다루도록 하겠다.

4) 백제 유물

동천하류역에서 출토된 백제 유물은 6세기 이후 백제가 전남동부권에 진출하면서 동천하류역 일대가 백제의 직접지배체제로 전환되는 것과 관련하여 진출 시기를 알 수 있는 유물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된 유물로는 용강리유적 석곽묘 출토 토기류와 마로산성 평기와, 단경병 등이 있다.

먼저 토기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는 용강리유적 25호 석곽묘, 마로산성 2호 석축 집수정 출토품이 있다. 용강리 25호 석곽묘에서는 광구호+대접의 조합으로 부장된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양식은 사비기에 보이지 않고 웅진기에 해당한다 (이동희 2011: 153). 그리고 마로산성 2호 석축 집수정 출토 단경병은 2점으로 구연부가 외반하고 구순에는 1조 흠이 있으며,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형성되었고, 저부는 평저로 다소 넓은 편이다. 이는 土田純子(2005: 8~14)의 분류에 따르면, 구연부는 웅진기가 되면 외반하는 것이 많아지고, 동체부는 동최대경이 동중위에 형성되는 것이 한성기~웅진기로, 저부가 넓은 형태는 웅진기까지 이어지면서 사비기로 갈수록 좁아진다.

[표 2, 도면 12] 용강리 I 유적 편년(표는 이동희 2011: 153 수정후 재인용) 및 백제 유물(축척부동)



평면형태	구조	출토유물	호수	연대
(세)장방형	횡구식	광구호, 대접, 관고리, 관못	11,21,22,25호	6C 전반
세장방형	수혈식	개, 배, 단경호, 병, 심발, 철검, 철부, 철도자	18,30호 *석개토광묘	6C 2/4
장방형	횡구식	단경호, 병, 관고리, 관못	16,19호	6C 중후엽
장방형	횡구식	병, (인화문)유개합	7,8,9호	7C 전반
장방형	횡구식 수혈식	(인화문)유개합, 철도자, 교구, 관못	1,6,15,17,20호	7C 중후엽

다음으로 기와류 가운데 가장 이른 시기는 용강리 11호 석곽묘, 마로산성 I-1 건물지 출토품이 있다. 용강리 11호 석곽묘는 바닥에 암키와를 깔았는데, 외면은 선문 타날에 내면은 승석문이다. 마로산성 I-1 건물지에서도 다량의 암키와, 수키와가 출토되었고 마찬가지로 외면은 선문 타날에 내면은 승석문이 대부분이다. 송미진(2007: 11~15)에 따르면 마로산성 백제 기와 같은 경우 와통은 통쪽형 → 원통형, 통보흔은 포흔 → 승석흔으로 사용 빈도가 변해가고 선문 타날에서 이른 시기의 속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분할면은 여러 번 조정한 것이 많지만 외면 → 내면도 있는데 내면 → 외면 분할보다 이른 시기에 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조합 양식은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는 여수 고락산성, 순천 검단산성보다 약간 이른 시기로 6세기 전엽~중엽 무렵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상기한 토기류와 기와류를 통한 동천하류역의 가장 이른 시기 백제 유물은 웅진기인 475년~538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6세기 전엽~중엽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연대 및 단계설정

전술한 검토 내용들을 통해 동천하류역 취락의 연대 및 단계설정을 해본다. 기준이 되는 것은 각 유적과 유구의 연대와 이 지역 집단의 시기에 따른 전개에 분기점이 되는 유물의 변화양상을 근거로 삼았다.

먼저 I기는 주거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동천하류역 동쪽의 용강리 구릉 일대에서 1세기대 주거지가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3세기대가 되면 점차 평지로 주거구역이 확대된다. 목성리 · 도월리 · 인동리유적이 이에 해당하며, 평면형태 원형계 주거지로 소규모 군집을 이루며 조성되었다. 주거구역의 변화에 있어 상대적으로 협소한 구릉에서 넓은 평지로 확장하는 것은 집단의 규모가 점차 커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출토되는 유물은 생활용토기인 장동옹 · 시루 · 발형토기가 경질무문토기계통으로 각 형태적 속성 역시 3세기대를 반영한다. 4세기 중엽부터 외래의 주거문화와 유물이 이입된다. 즉 마한계 4주식이나 가야계 원형계+벽주식 주거지가 등장하고 마한계 주구토기, 고식도질토기단계의 아라가야계 승문계타날호 · 통형고배, 소가야계 완형무투창고배 등이다. 이러한 유물상은 5세기 전엽까지 확인되며, 주거형태 또한 5세기 전엽을 기점으로 원형계에서 방형계 주거지로 변한다. 따라서 I기는 3세

기~5세기 전엽으로 설정하였다.

Ⅱ기는 동천하류역 일대 충적지의 곳곳에 조성된 취락의 규모가 확대되고 방형계 주거지가 주류 주거문화로 위치한다. 특히 대규모 주거유적이 확인된 목성리 일대는 방형계가 우세하다. 동천하류역 취락은 생업·거주와 생산·교역 등으로의 경관이 보이고, (고)광양만과 인접한 도월리에서는 생산 유구가 확인된다. 또한 고분유적으로 도월리 분구묘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축조된다. 유물은 5세기 전엽이 되면 아래가야계은 반입되지 않고 소가야계 유물과 왜계 하지키, 마한계 연통형토기가 출토된다. 특히 소가야계 유물이 압도적으로 5세기 전엽~6세기 전엽까지 삼각투창고배·일단장방형투창고배·수평구연호·파수대부완·발형기대·개·유공광구소호 등 다종다양한 유물이 쏟아진다. 그에 반해 대가야계나 창녕계 유물이 5세기 중엽 이후에도 보이지만 소수 수량에 불과한 점이 주목된다. Ⅱ기는 주거형태의 변화와 취락의 경관 확장, 소가야계 유물이 확산되는 시기로 5세기 전엽~6세기 전엽으로 설정하였다.

Ⅲ기는 백제의 전남동부권 진출로 동천하류역에서 소가야계 유물이 급감하고, 백제지역의 묘제인 석곽묘와 마로산성이 축조되는 시기이다. 즉 백제의 직접지배체제 전환기로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용강리 11호·25호 석곽묘, 마로산성 I-1건물지·2호 석축 집수정의 출토품을 통해 6세기 전엽 이후로 설정하였다.

IV. 동천하류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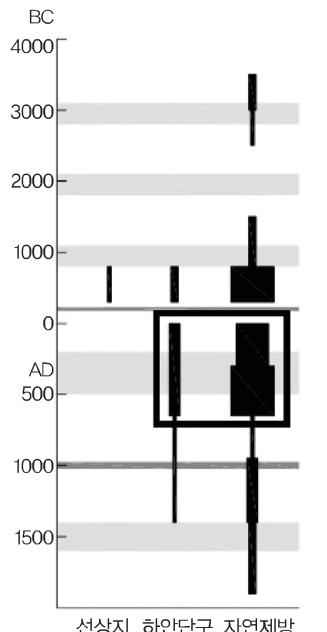
1. I 기

I기에 해당하는 3세기~5세기 전엽은 취락 입지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주변으로 경관이 확장되기 시작한다. 즉 동천하류역 동쪽 용강리유적 일대를 중심으로 1세기대 취락이 산발적으로 확인되고, 3세기가 되면 서쪽의 넓은 충적지로 주거구역이 확대된다. 광양지역은 대부분 산지로 구성되어 있고 평야지대가 많은 편이 아니다. 동천하류역은 북쪽 산지에서 발원한 하천이 광양읍의 남쪽 인동리와 도월리 일대에서 서천과 합류하여 현재의 세풍리 일대부터 (고)광양만에 속한다.

이 지역 집단은 3세기가 되면 용강리 일원에서 점차 벗어나 목성리·도월리·인동리 유적에서 알 수 있듯이 충적지 곳곳에 형성된 미고지와 자연제방을 중심으로

소규모 군집을 이루며 마을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목성리유적 삼국시대 수전충에서는 水田을 행했다고 볼 수 있는 벼의 규소체가 검출되기 때문에 충적지로 마을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으로 농경을 위한 생업활동이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충적지로의 입지 변화는 농경사회에 협소한 구릉에서 벗어나 대규모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이는 집단의 규모가 이전 시기보다 신장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와 관련된 또 하나 주목되는 점은 기후 환경의 변화가 있다. 충적지는 대단위 농경지의 확보를 통해 농업생산력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하천변에 인접하기 때문에 범람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기후환경에 있어 온난기에는 충적지의 범람이 빈번해지고 한랭기가 되면 해수면이 하강하고, 하방침식과 측방침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하천 주변 지형은 범람으로부터 안전해진다(이홍종 · 손준호 2012: 55~56). 기존 연구에서 3세기가 되면 한랭기가 돌아오는데, 동천하류역 또한 구릉에서 평야지대로 주거유적 점유가 늘어나는 것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 시기 주거문화에 있어서 이전 시기의 원형계 주거지와 경질무문 계통의 토기가 이어진다. 서쪽으로 인접한 고흥반도나 보성강유역은 일찍부터 방형계 주거지와 타날문 토기로 변하는 반면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까지 종전의 주거문화가 이어지는 것이다. 내부구조는 쪽구들식과 부뚜막식이 혼재하고, 기둥은 대부분 무주식이다. 이러한 주거양식이나 출토되는 생활용토기인 장동옹 · 시루 · 발형토기 등으로 보았을 때 구릉에서 평지로 거점을 이동한 집단이 외부 집단으로 볼 수는 없고 前시기부터 이어진 재지 토착집단으로 판단된다. 원형계 주거지는 연구자에 따라 광양지역의 타원형 주거지를 변한의 범위로 파악(김진철 2008: 63)하기도 하고 원형계 주거지를 이전 시기 재지적 주거문화의 전통에서 이어진다면서도 마한의 변방으로 인식(박미라 2010: 82)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거문화에 있어 이를 변한이나 마한의 분포범위로 볼 수는 없고, 주거구조나 유물이 이전 시기부터 이어져 온 연속성을 가지는 점과 마한계와 가야계가 교집합을 이루는 점이 기지대의 성격이기 때문에 토착집단에 의한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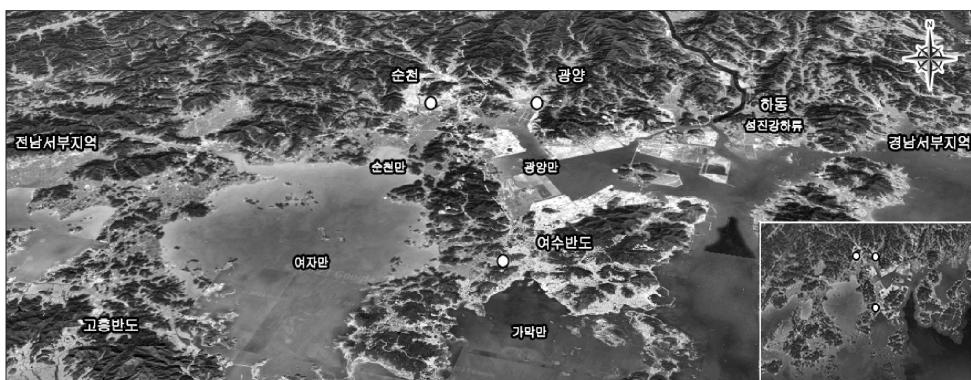


[도면 13] 호남지역 충적지 취락의 점유시기 변화
(이홍종 · 손준호 2012: 58 수정후
재인용, 가운데 넓을수록 해당 입지의
취락이 다수임)

거문화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이기건 2020: 86). 다만 마한이나 변한이라는 정치체 요소를 배제하고 주거문화와 유물의 변화상을 본다면 동쪽으로 인접한 경남서부지역과 공통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한편 稲作을 통한 농업생산력의 증대와 이를 통한 잉여생산물의 축적에 대한 기대값은 영산강유역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낮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천하류역을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은 4~5세기대 영산강유역이나 가야지역과 같은 독자적인 고분 및 토기문화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아직까지 이 지역이 정치·사회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회였음을 의미한다(이동희 2011: 126~127). 3세기가 되면 동천하류역 충적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확장되지만 대규모 취락으로 발전하였다기 보다는 소규모 단위의 군락을 이룬 것으로 판단된다.

4세기 중엽이 되면 동천하류역에서 외래문화가 유입되고, 관계망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도월리 Ⅱ-11호 주거지는 마한의 주거문화인 4주식 주거지이고, 3호·34호·41호 주거지에서는 마한계 주구토기가 4세기 후엽까지 확인된다. 또한 가야계 유물로는 도월리·목성리·인동리·석정 유적에서 고식도질토기의 아라가야계 승문계타날호나 통형고배, 소가야계 완형무투창고배가 출토된다. 특히 도월리유적에서 외래문화와 유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도월리 일대가 (고) 광양만과 바로 인접하고, 고려시대까지 馬老浦가 이 주변에 위치하였던 점에서 동천하류역 집단이 외부세력과 교역하는 창구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외래적 요소는 동천하류역 전체로 보자면 소수이기 때문에 토착집단의 주도 아래 외부집단과의 교역을 통해 경제적 관계망을 구축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14] 광양 동천하류역의 지리적 위치와 주변

이 시기 동천하류역에서 외래문화의 등장 배경에는 주변 환경과 지리적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광양 동천하류역의 서쪽으로는 순천이고 남쪽의 광양만으로 나아가면 여수반도와 접한다. 이들 지역은 고대 여러 문화가 접면하는 점이지 대 성격을 띠며 순천의 중심취락으로는 덕암동 일대, 여수는 죽림리 일대에서 대규모 주거유적이 조사되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의 지리적 위치에 있어 근래 대두되는 서남해안 연안항로에 대한 논의가 주목된다(임동민 2022). 요지는 백제-마한-가야-왜의 주요 교역로로서 남해안을 일주하는 연안항로를 이용하였는데, 연안항로 즉 육지를 가시권에 두고 항해하는 해양 교통로를 운용하였다는 것이다. 동천하류역은 바로 이 교통로 상의 기착지 가운데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으로 帶沙로 비정되는 섬진강 하류역은 지형적으로 강폭이 좁아 안정적인 포구로 이용되기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근의 여수, 순천, 광양 등지가 포구로 이용되었을 것이란 견해(조영제 2018)에 동의한다. 광양은 광양만, 순천은 순천만, 여수는 가막만을 끼고 있는 안정적인 澹을 갖추고 있어 포구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지형·지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확인되는 외래 주거문화나 외래계 유물은 동천하류역의 토착집단이 남해안 일대에 갖춰진 교역체계에 편입되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I기는 동천하류역 취락이 형성되고, 발전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3세기대부터 서쪽에 형성된 충적지로 거점을 이동하면서 농경활동을 영위해 나갔다. 다만 영산강유역이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농업생산력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3세기대 충적지 유적의 주거지로 보았을 때 소규모 군집을 이루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규모 취락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때문에 동천하류역 집단은 이러한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광양만의 안정적인 포구를 이용한 교역을 통해 외부세력과 관계망을 형성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즉 3세기~5세기 전엽대 연안항로를 통한 교역에 있어 이 집단은 서쪽으로 마한, 동쪽으로 가야(변한)의 중간지점에 있는 해양 교통로상의 기착지로, 이들 정치체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담당하면서 대외교역을 모색하고 성장을 도모했던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2. II기

II기에 해당하는 5세기 전엽~6세기 전엽은 동천하류역의 서쪽 평야지대가 이 지역의 중심 거점으로 완전히 정착되고 경관이 확장되어가는 시기이며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쏟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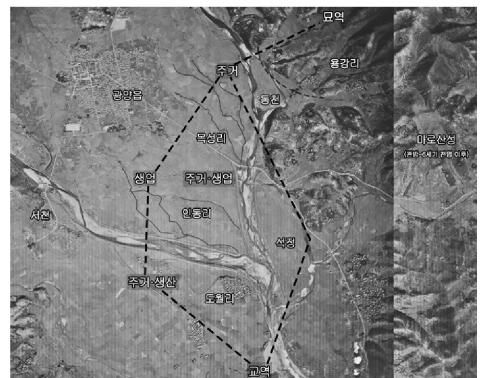
먼저 주거유적의 주거지 평면형태에 있어 5세기 전엽이 되면 원형계 주거지에서 방형계 주거지로 주거형태가 변하고 6세기 전엽까지 이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방형계 주거지로의 교체가 백제의 확장으로 이를 피해 내려온 마한계 피난민으로 보는 견해(두류문화연구원 2021)도 있으나 필자는 오히려 이전 논고에서 전남동부지역 주거형태 변화의 주체세력으로 소가야를 제시한 바 있다. 가야지역은 기원후 400년 고구려 남정으로 인한 정치적 변동과 토기, 주거문화의 분화가 일어나는 격변을 겪는다. 이때 전기가야의 大國으로 아라가야와 함께 연안항로를 통한 대외교역을 주도하던 가락국이 쇠퇴하고 고성과 경남서부지역 일대의 소가야세력이 성장하면서 아라가야의 수계망을 대신한다. 동천하류역에서는 아라가야계 유물이 5세기 전엽을 넘지 않고 소가야계 토기가 급증하면서 주거형태가 방형계로 변화하는 공통성이 있다(이기건 2020: 89). 그에 반해 마한계 4주식 주거지와 연통형토기 등이 확인되는 비율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원형계 주거지를 조성한 집단을 마한계 피난민이 대체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5세기 전엽 이후 소가야계 유물은 삼각투창고배 · 일단장방형투창고배 · 수평구연호 · 파수대부완 · 발형기대 · 개 · 유공광구소호 등이 반입된다. 기존 연구에서 소가야계 토기는 전남동부지역 가운데 광양과 여수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하승철 2022). 최근 대규모 주거유적이 확인된 목성리 일대에서도 5세기 대가 되면 소가야계 유물이 여타 다른 외래계 유물보다 출토 수량에 있어서 높은 비율을 보이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고고학적 자료가 더욱 증가하였다. 소가야계 유물과 공반되는 유물을 살펴보면, 삼각투창고배는 5세기 전엽 왜계 하지키와 함께 출토된다. 석정(대)유적 14호 주거지와 목성리(두) I -2-61호 주거지에서는 삼각투창고배와 함께 공반되지만 석정(대) 5호 주거지는 아라가야계 통형고배가 공반되는 등 5세기 전엽 대외 관계망의 변화 속에 과도기적 양상이 보이기도 하지만 5세기 전엽을 넘어가면 소가야계 유물 일색이다. 이러한 외래계 유물의 출토양상은 동천하류역 집단이 아라가야 관계망을 대신한 소가야를 매개로 백제-마한-가야-왜로 이어지는 해양 네트워크에 포함되면서 발전을 모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즉 종전 4세기 중엽부터 여러 외래문화가 이입되면서 경제적 관계망을 형성했던 동천하류역 집단이 5세기 전엽 이후 타 정치체보다 소가야와 상호 밀접한 관계를 맺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는 소가야에 정치적으로 예속된 관계나 소가야인들이 대거 이주

한 결과는 아닐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5세기대에도 마한계 4주식 주거지가 산발적이지만 조성되고 있고, 연통형토기는 석정(대) 14호 주거지와 목성리(두) II-3-64 · 76 · 89호 주거지 등에서 삼각투창고배와 공반되는데 5세기 중엽~후엽까지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동천하류역 집단은 여러 정치체의 문화가 접면하는 점이지대로서, 여러 계통의 주거형태와 유물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이 지역을 주도한 것은 이를 받아들인 토착집단이었다고 판단된다.⁷⁾

5세기 중엽~후엽이 되면 소가야계 유물의 기종 구성이 다양해진다. 도월리유적에 서 수습된 수평구연호, 목성리(두) I-2-150호 출토 파수대부완, 이들 유적에서 출토 된 개, 발형기대 등이다. 또한 목성리유적 출토 창녕계 개는 5세기 중엽으로 모방제 품으로 보이지만 경남동부지역의 토기문화도 전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가 되면 동천하류역 일대 경관의 외연이 확장된다. 도월리유적에서는 주조공방, 주조관련시설에서 송풍관편 · 노 벽체편 · 입상재 · 슬래그 · 주조철부 토제용범 · 도 가니 뚜껑 등이 출토되었다. 목성리 일대는 소하천 주변으로 여러 군락을 이루는데 II-3지구 같은 경우 67호 주거지에서 발화구 대석 · 연통형토기가 출토되었고, 이곳 주변으로 숫돌 · 철검 · 철부 · 철촉 · 철도자 · 철협 등이 다량으로 확인된다. 이는 동 천하류역 집단이 철 생산능력을 갖춤으로써 자체적으로 필요한 철기류를 제작하고 대외교역을 위한 생産품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취락이 성장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취락의 정치적 신장은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도월리 일대에 조성된 분구 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정되는 직경이 20m급으로 분구를 감싸는 주 구가 돌아가는데, 소가야양식 유공광구 소호가 출토되었다. 도월리 분구묘는 입 지 · 대형의 분구 · 지상식의 매장주체 부 ·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피장자는 소 가야지역과 관계성을 가지는 재지 수장 묘로 상정할 수 있다(이동희 2011: 141). 한편 동천하류역에서는 아직까지 5세기



[도면 15] 5세기 중엽 이후 동천하류역 일대 경관조직

7) 물론 동천하류역이 교역을 위한 기착지이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도 상주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본적으로 정 주의 목적이 아닌 교역을 위한 '오고 가는' 임시 목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창녕 계성리유적은 한시적 으로 4세기 중엽~5세기 전엽 마한인들이 이주하여 교역을 행했던 생활유적이다.

대 이 지역의 묘제인 토팔묘가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인근의 순천 운평리고분군, 여수 죽림리유적의 5세기대 토팔묘에서 소가야계 유물이 부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동천하류역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추정해볼 수 있고, 6세기대 묘제가 확인된 용강리 일대의 마로산 구릉이 중·하위 계층의 묘역, 도월리 일대가 상위 계층의 묘역이었을 가능성 있다.

5세기 중·후엽이 되면 가야지역의 경남서부지역에서는 산청 생초원, 함양지역이 기준의 소가야 토피에서 대가야 토피로 변하는데 기준 소가야가 차지한 관계망을 대가야가 대신한 것으로 이해된다. 함양과 남원으로 이어지고 섬진강 중·상류에서 남하하여 하류의 광양과 가까운 하동지역도 대가야 토피가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그러나 이 시기 동천하류역에서 확인되는 대가야계 토피는 도월리와 목성리유적의 개 5점 정도로 여전히 소가야계 토피가 더 많다. 다만 5세기 후엽 순천지역에는 대가야의 후원을 받은 운평리고분군 집단이 이 지역을 주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동쪽의 광양 동천하류역도 그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전남동부지역은 任那四縣으로 비정된다(전영래 1985; 이근우 1994; 김영심 1997; 김태식 2000; 문안식 2002; 이동희 2004; 박천수 2009; 하승철 2022). 그런데 대가야계 유물은 주거유적보다 고분유적에서 주로 출토되었다. 동천하류역에서 아직까지 이 시기의 토팔묘나 석곽묘 같은 묘제가 명확하지 않고, 도월리 일대의 재지 수장묘인 소가야계 분구묘만 확인되기 때문에 소가야계 유물 부장에서 대가야계로 변화하는 고분이 발견될 가능성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Ⅱ기는 동천하류역 집단이 안정적인 광양만을 끼고 소가야를 매개로 해양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외교역의 기착지로써 발전해나갔다. 자체적인 생산 역량을 키웠고, 재지 수장총의 분구묘 조성은 이 지역 토착집단이 정치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6세기 전엽까지 소가야계 유물이 이어지고, 대가야계 유물은 상대적으로 적다. 다만 전남동부지역이 임나사현으로 비정되는 설을 따르자면 인근의 순천 운평리고분군이나 하동지역을 통해 동천하류역 역시 대가야가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이 있다.

3. Ⅲ기

Ⅲ기에 해당하는 6세기 전엽 이후는 기존 백제-마한-가야-왜로 이어지는 해양

네트워크가 와해되고 교통로 상의 기착지로 성장을 이루어낸 재지 토착집단이 백제의 직접지배체제로 편입되는 시기이다.

소가야계 유물은 6세기 전엽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현저히 급감하고, 이와 함께 이 시기 주거유적도 확인된 예가 적다. 이에 대해 백제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서 취락의 거점이 이동했을 수도 있지만 그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이유는 동천하류역과 인접하여 용강리 일대에 백제 고분이 조성되고 마로산성이 축성되기 때문에 치소가 다른 곳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동천하류역 내에서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으로 이동했을 수는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가지 정도를 견해를 제시해보고자 한다.

첫째, 전술한 기후 환경의 변화이다. 3세기대 범람의 위험으로부터 어느 정도 안정화된 시기에 동천하류역 집단 역시 취락의 거점을 평야지대로 옮기면서 점차 성장해나갔다. 한랭기는 대체로 3~6세기까지로, 7세기 중엽 이후가 되면 호서·호남지역에서 충적지 내 주거유적의 점유는 줄어드는데(이홍종·손준호 2012: 59) 지역별 환경변화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후 변화와 상관관계를 가지는지는 좀더 검토되어야겠지만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주제라고 생각된다.

둘째, 6세기 전엽 이후는 백제 웅진기~사비기로 이때 백제의 주거양식은 점차 지상화가 이루어진다. 이 시기 동천하류역에서는 용강리 일대를 중심으로 백제계 석(실)곽묘가 조영되기 시작하고 백제 토기가 부장된다는 점에서 묘제와 함께 벽주건물의 주거양식이 전파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로산성 I-1건물지는 6세기 전엽~중엽으로 초석식의 건물이라는 점에서 이 지역에 지상화가 이루어진 건물이 이미 확인되었다.

따라서 6세기 전엽 이후의 양상을 주거유적에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용강리유적의 고분군과 마로산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으며, 그에 앞서 백제가 광양지역을 영역화한 시기와 관련된 임나사현에 대해 먼저 언급해보고자 한다.

『日本書紀』卷17, 繼體紀 6년 12월 기사⁸⁾의 임나사현 할양기사로 512년에 해당한다. 『日本書紀』는 다분히 윤색되었기 때문에 실제 임나사현을 장악한 것은 백제 東進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이는 백제와 경쟁한 이 지역 정치체에 대한 해석으로, 우선 임나는 가야를 총칭한다. 동천하류역에서 고고학적 증거는 소가야와 더 밀접한

8) 『日本書紀』卷17, 繼體天皇 6年 12月, “(중략) 任那國의 上哆唎, 下哆唎, 嫡陀, 車婁 4현을 청하였다.(중략) 상표에 따라 임나 4현을 주었다.”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婆陀로 비정되는 순천 운평리고분군 집단과 帶沙로 비정되는 하동지역은 대가야와 관련이 깊다. 광양 동천하류역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선 언급처럼 대가야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동천하류역 집단이 가야지역과 연결성이 강하다는 것은 이 지역 집단이 4세기 중엽부터 가야지역과 오랜 기간 관계망을 형성해왔기 때문으로, 동천하류역 일대가 임나사현 가운데 ‘牟婁’의 중심지로 지목된다. 마로산성에서 출토된 ‘마로관’명 기와는 ‘모루’와 지명이 비슷하다.

결과적으로 문헌기록에서 전하는 512년대에 백제가 가야와 관련이 있는 이 지역을 장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용강리유적 25호 석곽묘에 부장된 광구호와 대접을 통해, 이 시기부터 백제계 석곽묘가 조성되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 후행하는 18호 · 30호 석개토광묘에서는 백제 토기가 부장되지만 묘제에서 토착집단의 전통이 남아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고분군의 조성과 비슷한 시기에 마로산성이 축성된다. 이는 마로산성 2호 석축집 수정 출토 단경병과 I -1건물지 출토 기와를 통해 알 수 있다. 마로산성 백제 기와는 이른 시기 용강리 11호 석곽묘 바닥에 깔린 암키와와 거의 유사하고, 6세기 중엽의 여수 고락산성, 순천 검단산성보다 약간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다.

따라서 6세기 전엽~중엽 사이에 마로산성이 축성된 것으로 보이며, 6세기 중엽에는 광양을 포함한 전남동부지역이 백제의 직접지배 체제하에 완전히 편입되어 각 산성은 치소의 기능을 수행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여수 · 순천 · 광양 지역의 산성 축성은 기착지가 있는 磻과 인접한 곳에 쌓았다. 백제는 이를 통해 가야세력과 대외 교역을 하던 토착집단을 통제하고, 섬진강을 넘어 가야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이자 방어의 목적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광양 동천하류역은 3세기대 이후 이 지역의 대외교역을 담당하던 핵심적인 중심 취락으로, 5세기대부터 가야지역과 본격적으로 관계망을 형성하여 ‘모루’라는 정치 체로 성장했던 것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6세기 전엽 이후 동천하류역 일대는 백제의 영역화 후에도 치소였던 점에서 여전히 광양지역의 거점으로 자리하였다. 또한 목성리(두) II -3-51 · 52호 주거지 출토 인화문 개, 편구병, 대부완과 마로산성의 건물지 를 통해 7세기 중 · 후엽인 통일신라시대에도 동천하류역이 광양지역의 중심취락으로 기능하였음을 알 수 있다.

V. 맷음말

광양 동천하류역은 최근까지 지속적인 발굴조사 성과로 고고자료의 추가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기존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지역에서는 주거·고분·관방·생산 등의 복합유적의 존재가 확인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광의적 의미에서의 취락으로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곳은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는 자연·지리적 환경과 점이지대의 성격을 떠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들을 검토하여, 자연·지리적 환경의 변화와 각 유적과 유구의 연대, 이 지역 집단의 시기에 따른 전개에 분기점이 되는 유물의 변화양상을 근거로 I~III단계를 설정하여 광양 동천하류역 취락의 형성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I 기인 3세기대가 되면 토착집단은 평지로 취락의 거점을 이동하면서 활동하였고, 4세기 중엽부터 타 지역의 주거문화와 유물이 반입되어 점이지대의 성격을 띤다. 지리적으로 마한과 가야의 변방에 위치하고 있어 발전이 늦었던 이 지역 집단은 이를 극복하고자 교역에 집중하면서 성장을 모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II 기인 5세기 전엽부터 소가야계 유물은 타 정치체보다 압도적인 수량을 자랑하고 주거형태도 방형계로 바뀐다. 그리고 이 시기 마한계와 왜계 유물의 반입을 통해 백제-마한-가야-왜로 이어지는 해양 교통로에서 가교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천하류역 집단은 종전의 경제적 관계에서 벗어나 소가야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었으며, 자체적인 철 물품 생산과 5세기 후엽~6세기 전엽 재지 수장묘인 분구묘를 조성함으로써 토착집단의 정치적 신장을 짐작할 수 있다. 전남동부지역은 임나사현으로 비정되고, 광양 동천하류역이 모루의 중심취락으로 지목할 수 있다.

III 기인 6세기 전엽 이후 백제 고분군과 마로산성이 조성됨으로써 동천하류역의 토착집단은 백제의 직접지배 체제에 편입되지만 여전히 이 지역이 치소로 기능함에 따라 광양지역의 중심취락으로 자리하였다.

투고일 2023. 12. 31 | 심사완료일 2024. 1. 15 | 게재확정일 2024. 2. 8

참고문헌

- 『三國史記』.
- 『日本書紀』.
- 김영심, 1997, 「百濟 地方統治體制 研究: 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은경, 2017, 「호남지역의 마한 토기: 주거지 출토품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재훈, 2019, 「광양만권 1~6세기 주거지에 관한 연구」, 순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종일, 2006, 「경관고고학의 이론적 특징과 적용 가능성」, 『한국고고학보』58, 한국고고학회.
- 김진철, 2008, 「삼국시대 타원형 수혈주거지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태식, 2000, 「역사학에서 본 고령 가라국사」, 『가야각국사의 재구성』,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문안식, 2002, 『백제의 영역확장과 지방통치』, 신서원.
- 박미라, 2010, 「전남동부지역 가야계토기 출토 주거지의 성격」, 『문화사학』33, 한국문화사학회.
- _____. 2019, 「전남지역 주거-「조 비교분석을 통한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마한·백제 그리고 가야』, 호남고고학회 제27회 정기학술대회 발표자료집, 호남고고학회.
- 박천수, 2009, 「호남 동부지역을 둘러싼 대가야와 백제-임나사현과 기문, 대사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65, 한국상고사학회.
- 박태홍, 2007, 「全南 東部地域 百濟山城의 分布와 그 意味」, 『한국상고사학보』56, 한국상고사학회.
- 송미진, 2007, 「마로산성 출토 평기와: 백제기와를 중심으로」, 『한국기와학회 학술논집』3, 한국기와학회.
- 식문화탐구회, 2008, 『취사의 고고학(한지선)』, 서경문화사.
- 안제호, 2005, 「韓半島에서 출토된 倭 관련 文物-3~6세기를 중심으로-」, 『왜5왕 문제와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 이근우, 1994, 「『日本書記』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학위논문.
- 이기건, 2020, 「삼국시대 남해안지역 수혈주거지 연-「경남서부지역 및 전남동부지역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희, 2004, 「全南東部地域의 加倻系土器와 歷史的 性格」, 『한국상고사학보』46,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1, 「삼국시대 전남동부지역의 문화상과 교류」, 『삼국시대 남해안의 문화상과 교류』, 제35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발표자료집, 한국고고학회.
- _____. 2014, 「1~5세기 호남동부지역의 주거와 취락」, 『야외고고학』19, 한국매장문화재협회.
- 이유진, 2008, 「5~6세기 유공광구호의 변천과 분포」, 『영남고고학』46, 영남고고학회.
- 이홍종·손준호, 2012, 「충적지 취락의 지형환경」, 『영남고고학』63, 영남고고학회.
- 이희준, 2008, 「대가야 토기 양식 확산 재론」, 『영남학』13,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임동민, 2022, 「가야-백제 관계와 동아시아-백제 한성기 서남해안 연안항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의 가야』, 2022년 한국고대사학회 가야사 기획 학술회의, 한국고대사학회.
- 전영래, 1985, 「백제남방경역의 변천」, 『천관우선 생활력기념 한국사학논총』.
- 井上主税, 2007, 「영남지방 출토 왜제유물로 본 한일교섭」,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일, 2012, 「全南地城 煙筒形土器에 대한 檢討」,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 대한문화재연구원.
- 정주희, 2008, 「咸安樣式 古式陶質土器의 分布定型에 관한 研究」,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효은, 2015, 「경남서부지역 삼국시대 생활용 토기의 변천과 의미」,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근우, 2019, 「섬진강유역 가야문화의 형성과 변천-호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과 영남 경계의 가야』, 2019년 가야사 기획학술심포지엄 발표자료집,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 조성원, 2016, 「영남지역 출토 4~5세기대 土師器系土器의 재검토」, 『한국고고학보』99, 한국고고학회.
- 조영제, 2018, 「하동의 가야·선사문화」, 『섬진강의 고고학』, 경상대박물관.

- 최영주, 2009. 「삼국시대 토제연통 연구: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31, 호남고고학회.
- 土田純子, 2005, 「백제 단정명 연구」, 『百濟研究』42,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하승천, 2015, 「소가야의 고고학적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22, 「섬진강 하류지역 가야문화의 확산과 정치체의 변동」, 『역사학연구』88, 호남사학회.

※ 보고서는 [표 1]을 참고바라며, 지면관계상 생략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3rd~6rd Century Settlements in the downstream of Dong-cheon, Gwangyang

Lee, Gi-Gun(Researcher, Sejong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This article is a study on the process of settlements formation and development during the 3rd ~ 6th centuries in the down Dong-cheon area among the Gwangyang area, which is a regional area in the eastern part of Jeonnam. This region has been continuously yielding archaeological findings through recent ongoing excavations, necessitating further research utilizing both existing and newly acquired data.

The historic sites over the down stream of Dong-cheon, Gwangyang region have been studied are 7 points and 10 locations. This place can be classified broadly into their features such as dwelling, mound, fortress, and production. This area is also where many foreign artifacts are concentrated.

This is understood as the nature of the natural and geographic environment and the transitional zone of this area. Therefore, the above contents were reviewed, and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process of the Dong-cheon Stream downstream region in Gwangyang was examined by dividing them into I ~ III.

In the 1nd period, natives broaden their residence to flatland in the 3rd centries and their housing culture and relics started to flow in and features as the transitional zone in the Mid-4th centries. It seemed that having grown while serving as a stopover for foreign relations, that to overcome the geographical limitation causing slow development, which located in boarder area of Mahan(馬

韓) and Gaya(加耶).

In the 2nd period, after early 5th centuries, the amount of Sogaya(小加耶) type relics have been appeared to overwhelmed to other political systems. Also their form of habitations had changed into a square shape. Through the importing Mahan or Wae type relics, it can be seen as means of bridge in marine route connecting Baekje(百濟)-Mahan(馬韓)-Gaya(加耶)-Wae(倭) during this term. The downstream group of Dong-cheon, formed relationship between Sogaya(小加耶) more closely. It can be estimated by producing their own products and constructing mounded tomb of regional head's tomb from the late 5th centuries to early 6th centuries, that indigenous forces had been increased. The eastern part of Jeonnam was designated as Imnasahyun(任那四縣), and it is certain that downstream of Dong-cheon were central settlement in Moru(牟婁).

In the 3rd period, passing the first half of the 6th century, with the construction of Baekje(百濟) tombs and Maro Mountain Fortress, the downstream of Dong-cheon was included in the direct ruling system of Baekje's local administration, and it still remained as the central settlement of the Gwangyang region.

Key words : Settlement, transitional zone, Maritime Network, Gaya, Mahan, Baekje

